

소비자 수요에 맞는 **고품질 쌀 생산체계로 개편**

생산 안정화

신규 수요 창출

- ▶ 벼 재배면적 8만ha 조정제 시행 후 수급 안정 유지



- ▶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품질 고급화 및 신규 수요 창출
* 고품질 벼 보급종 비중 :
(25) 신규 선정 → (29 목표) 90%



1 쌀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을 조정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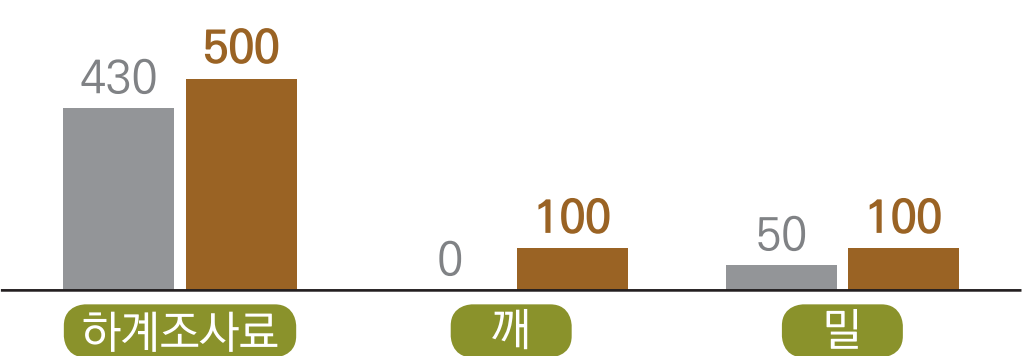
▶ 벼재배면적 조정제 시행

- 총 8만 ha 감축 목표



▶ 타작목 전환 지원 확충

- 전락작물 지원 강화
- 직불 지급단가 확대('24 → '25, 만원/ha)



- 생산기반 조성
- 논공단지 배수개선, 용수공급 지원 확대

▶ 간척지 벼 생산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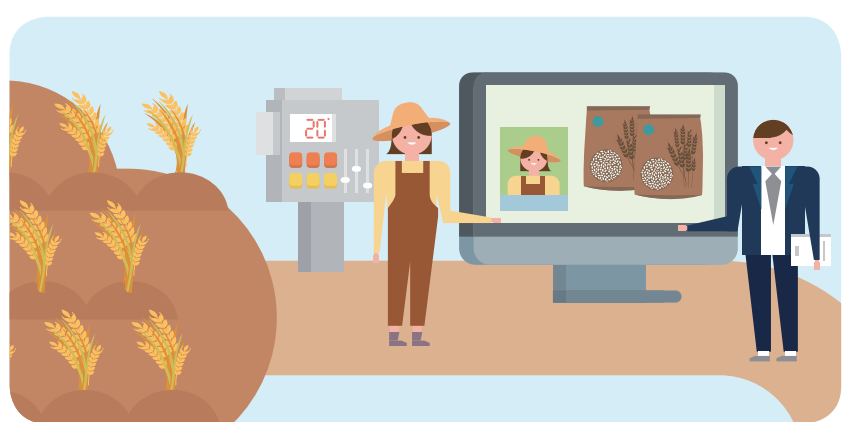
- '30년까지 타작물로 단계적 전환



2 무게 중심에서 고품질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.

▶ 고품질 품종 중심 소비·공급 체계 전환

-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지정
- 우수 품종 선정·보급 확대



▶ 친환경 쌀 재배 확대

- 최대 15만톤 공공비축미 매입
-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 인상('25년)
유기 70 → 95만원/ha, 무농약 50 → 75만원,
유기저속 35 → 57만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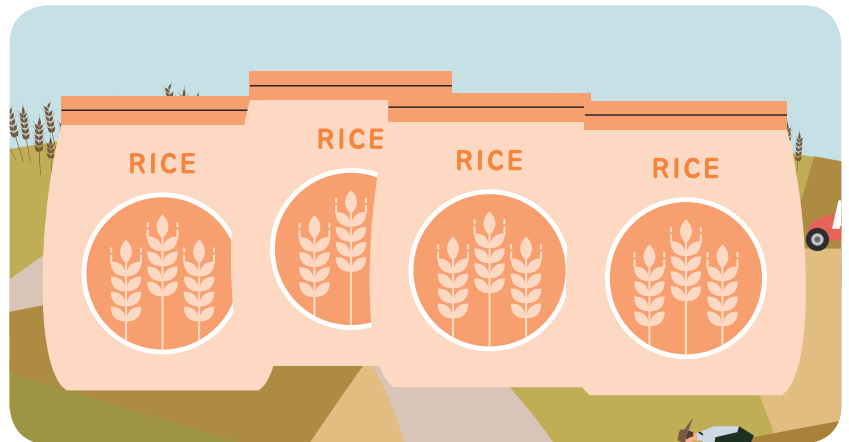
▶ 단백질 표시 의무화

- 단백질 함량 낮은 쌀 생산 유도



▶ 찌라기 혼입 한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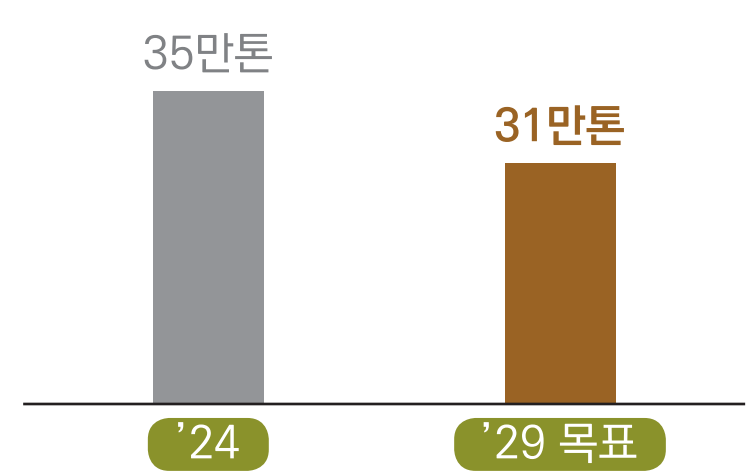
- 찌라기 함량이 낮은 쌀 유통 확대
* 찌라기 혼입 최고한도 :
'상' 등급 7% → 6%, '보통' 등급 12% → 10%



3 시장에 기반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.

▶ 식품기업 민간 신곡 사용 촉진

-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감축



- 수출·가공용쌀 전문생산단지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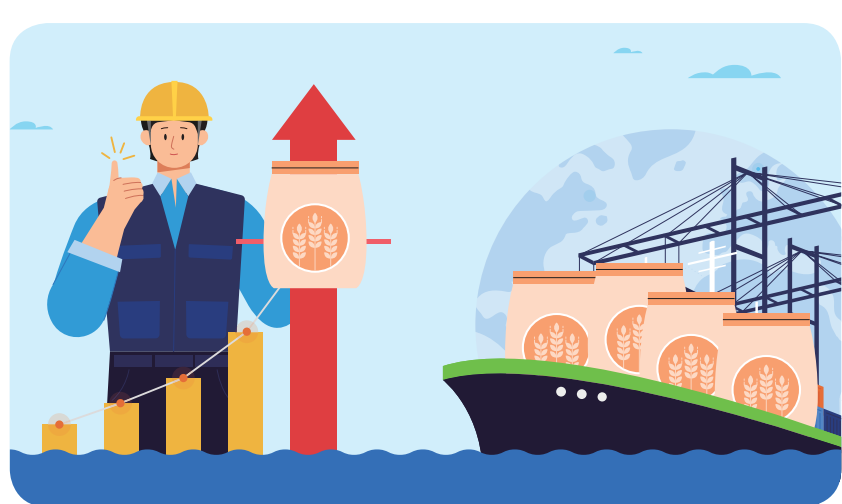
▶ 전통주 산업 육성기반 마련

-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강화
- 주세 감면 구간 확대 등
- 전통주 판로지원·홍보



▶ 쌀가공식품·밥쌀 수출 확대

- 쌀가공식품 수출 홍보관 신설
- 밥쌀 수출 지원, 식량원조 확대



▶ 쌀의 가치 확산 및 소비 촉진

- 과학적 데이터 근거 쌀 인식 개선
- 곡물체험학교 등 소비 캠페인



4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▶ 고품질 중심 산지유통 구조 전환

- 혼합미 유통 비중 42% → 10%
- 고품질 생산이력제 시범 추진



▶ 산지유통주체 경쟁력 제고

- 저가매매 등 시장교란 행위 제재
- 수탁거래 활성화



▶ 정부양곡체계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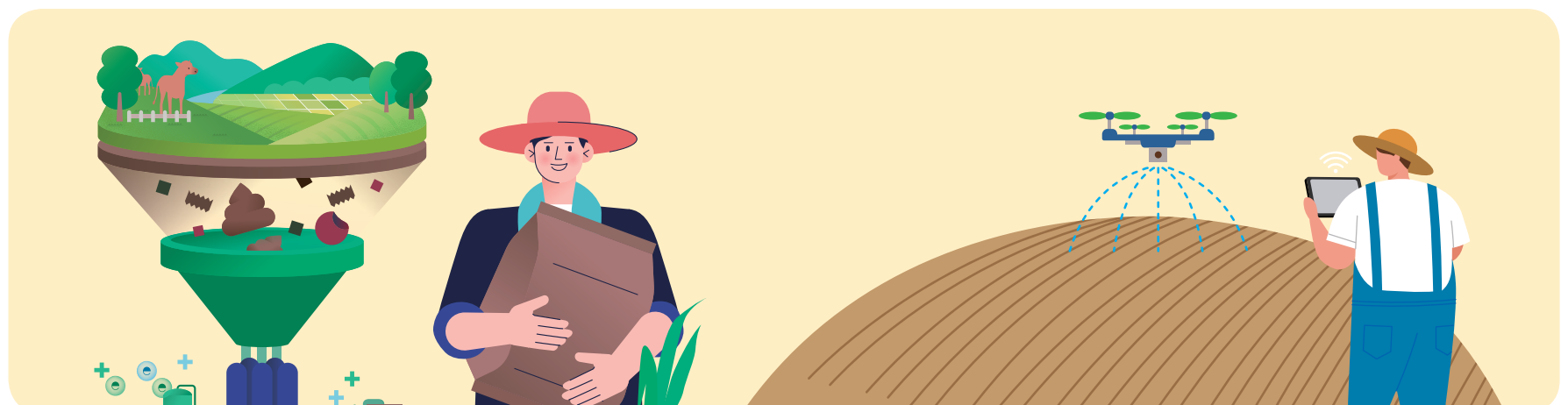
- 정부양곡 가공도급 계약조건 개선
- 식량원조용 쌀 공급 과정 내 민간 역할 확대



5 고품질, 신규수요 창출 기반 R&D를 지원하겠습니다.

▶ 고품질 쌀 재배기술 개발·보급

- 쌀 적정생산 재배기술 및 품종 개발
- 비료 저감기술 개발, 지역 맞춤형 고품질 벼 품종 개발 등
- 기후변화·병충해 대응 R&D 추진



▶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&D 지원

- 산업체 맞춤형 R&D 지원
- 가공용·기능성 쌀 품종 개발
- 국산 쌀 소재화·제품개발 R&D
- 쌀가공식품 R&D 협의회 운영

